

손흥민·구자철·박지성 ‘크리스마스 특명’

굿 피날레 버리는 코리아빅3

손 21일 브레멘 상대 시즌 8호골 도전
구 22일 클라브하흐전 부상 회복 증명
박 23일 덴 하그 제물 팀 상승세 견인



손흥민 구자철 박지성

올해 마지막 경기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자. 손흥민(21·레버쿠젠)과 구자철(24·볼프스부르크), 박지성(32·아인트호벤)에게 내려진 특명이다. 잉글랜드의 경우 연말, 연초에 박성데이에 돌입한다. 박성데이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을 가리키는 말로, 영연방 국가들은 휴일

로 지정해 성탄을 축하하며 선물을 나눈다. 그러나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에게 박성데이는 살인 일정의 시작이다.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4~5경기를 소화하는 강행군을 펼쳐야 한다. 기성용이 속한 선덜랜드만 해도 22일 노리치시티(홈)에 이어 27일 에버턴, 29일 카디프

시티와 2연속 원정경기를 치르고 다음 달 2일 애스턴빌라와 홈에서 만난다. 반면 독일 분데스리가와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에는 12월 말 경기 이후 약 4~5주 간 휴식에 돌입한다. 손흥민은 21일 베르더 브레멘(원정), 구자철은 22일 뮌헨 클라브하흐(원정), 박지성

은 23일 덴 하그(홈)전 이후 1월 말까지 경기가 없다. 이들은 올해 마지막 경기를 잘 치른 뒤 새해를 맞이하겠다는 계획이다. 각자에게 주어진 미션은 조금씩 다르다. 손흥민은 골에 도전한다. 최근 리그 2경기에서 3골을 넣으며 상승세를 탔던 손흥민은 16일 프랑크푸르트와 홈경기에서 90분을 소화했지만 득점에 실패했다. 손흥민은 브레멘을 상대로 시즌 8호골을 작렬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레버쿠젠은 현재 승점이 37로 1위 바이에른 뮌헨보다 7점 뒤져 있고 3위 도르트문트보다는 5점 5앞서 있다. 손흥민의 골이 터지면 1위 추격에 본격 시동을 걸 수 있다. 구자철은 건재해 과시해야 한다. 구자철은 15일 슈투트가르트와 경기에서 부상 후 두 달

여 만에 후반 교체 투입돼 가벼운 몸놀림을 보였다. 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구자철은 최근 마인드 이적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가 더 중요하다. 박지성은 팀을 살린다는 각오다. 박지성이 부상으로 나가있는 동안 리그 7경기에서 2무 5패로 부진하던 아인트호벤은 박지성이 선발로 뛴 16일 위트레흐트 원정에서 모처럼 5-1로 대승했다. 이번 상대인 덴 하그는 리그 하위권 팀이라 반전을 위한 제물로는 안성맞춤이다. 손흥민과 구자철, 박지성은 주말 경기를 마친 뒤 잠시 귀국해 자선행사에 참여하는 등 짧은 휴식을 가질 예정이다.

윤태석 기자 sportic@donga.com 트위터@Bergkamp08



홍명보장학재단이 주최하는 자선경기 미디어데이가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대표팀 홍명보 감독과 김태영 코치, 김신욱(왼쪽부터)이 기자회견 도중 밝게 웃고 있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트위터@bluemaerine007

2002년 4강 멤버 막걸리파티 “더블우승 황선홍 한턱 썩어야지!”

2002한일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끈 주인공들이 18일 경기도 기흥의 한 골프장에서 회동했다. 작년 첫 모임에 이어 두 번째 골프회동. 올해는 12명이 참석했고, 이어진 막걸리 파티에는 6명이 더 합류했다.

당시 히딩크코치 코칭스태프였던 축구협회 정책심판위원장 겸 상주상무 박항서 감독을 비롯해 선수로 뛴 대표팀 홍명보 감독과 김태영 코치, 서울 최용수 감독 등이 참석했지만 빠져선 안 될 인물이 불참했다. 포항 황선홍 감독이다.

사실 황 감독은 이 자리의 스폰서(?)가 돼야 마땅했다. K리그 클래식(1부 리그)과 FA컵을 평정한 기쁨으로 한턱 썩어야 했지만 미국 출장 중이라 나오지 못했다. 황 감독은 작년 모임 때도 정규리그 우승자인 최 감독, 2012년런올림픽 동메달을 일군 홍 감독과 함께 FA컵 우승 자격으로 골프 비용과 식자비를 나눠 부담했다.

K리그 챌린지(2부 리그) 우승과 내년 클래식으로 승격한 기쁨으로 상주 이재철 사장이 준비해준 곱장 세트를 참석자들에게 돌린 박항서 감독은 “작년은 실업자도 있었고 회원들 처지가 신동치 않았는데 올해 달라졌다. 한자리씩 한다. 나름 경점사를 맞은 나도 그 축에 끼어 줄 수 없다”면서 “이제 황선홍 감독이 얼마나 회비를 크게 낼지 두고 보겠다”며 활짝 웃었다. 이날 모임에서 초대 회장으로 홍 감독을 선출한 2002멤버들은 내년에는 1박2일 워크숍을 떠날 예정이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홍명보 “김태영 감독 데뷔전 마지막무대 될 것” 김태영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흥감독 쏘다”

‘쉐어 더 드림 풋볼 매치’ 앞두고 훈훈한 설전

매년 이맘때면 그리운 누군가가 있다. 대표팀 홍명보 감독이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자선 경기를 열었다.

홍명보장학재단이 주최하는 ‘쉐어 더 드림 풋볼 매치(Share the Dream Football Match)’는 어느덧 11회째를 맞았다. 올해 대회는 29일

오후 2시 잠실실내체육관(KBS1 생중계)에서 진행된다. 대회를 열을 앞둔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식 미디어데이가 열렸다. 예년에 비해 선수단 면면부터 훨씬 화려해진만큼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입담도 흥미진진했다. 사령탑도, 선수들도 재미있는 입성 대결을 펼쳐 좌중을 웃겼다.

독일 분데스리가 손흥민(레버쿠젠)-구자철(볼

프스부르크)-박주호(마인츠) 등 해외파 선수들이 중심이 된 사랑팀의 흥 감독부터 작심한 듯 상대를 공격했다.

“우리가 상대할 희망팀 사령탑이 대표팀 김태영 코치다. 그의 감독 데뷔전이다. 난 이번 경기를 김 감독의 처음이자 마지막 감독으로 임하는 무대로 만들어주겠다.”

선배로부터 불의의 공격을 당한 김 코치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부담 없는 공약하나를 내 걸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사랑팀에 패하면 내가 감독직을 사퇴하겠다. 오늘 내가 착용한 넥타이가 팔뚝 콘셉트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쏘겠다’는 의미다. 이를 (홍 감독이) 실감케 해주

겠다”고 약속했다.

제자들도 스승에 뒤지지 않았다. 희망팀 간판스타 김신욱(울산)은 “과거 이 대회를 항상 TV로 접해야만 했다. 올해가 첫 참가다. 목표가 있다면 (손)흥민이보다 한 골을 더 넣고 제대로 막는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사랑팀 김진수(니가타)는 감독-선수 모두에게 도발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쏘 뒤 김 감독님 앞에서 승리 세리머니를 하겠다. (김)신욱이 형은 내가 잘 안다. 흥민이보다 많은 골을 넣겠다고 하는데 이 건 풋살이다. 신욱이 형은 여전히 발 밑이 약하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최연소 아시아 올해의 감독상...축구인생 새로운 터닝 포인트

인물로 본 2013년 한국축구 명암

4 AFC감독상 수상 최우수

성적·홍행 뿐 아니라 재미있는 축구 구상 옮겨줄 선수 스쿼드에도 많은 변화 줄 계획

최근 몇 년 사이 K리그에서 가장 ‘핫(hot)’한 지도자로 FC서울 최우수 감독이 꼽힌다. 최 감독은 2011년 4월, 감독대행 신분으로 벼랑 끝에 몰린 팀을 맡아 훌륭하게 재정비했다. 이듬해인 2012년 정식 감독 타이틀을 처음 달고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K리그 감독상을 수상했다. 올해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에 이어 아시아 올해의 감독상까지 받았다. 최 감독은 ‘쇼맨십’도 자타공인 최고다. 작년 올스타전 때는 득점 후 당시 화제를 모으던 이탈리아 공격수 발로렐리 세리머니로 폭소를 자아냈다. 작년 리그 우승 확정 후에는 진짜 말을 타고 등장해 주변을 짹짹 놀라게 했다.

●최우수가 꿈꾸는 축구

최 감독 등장 이후 K리그의 벤치 문화가 역동적으로 바뀌었다. 최 감독은 벤치에서 거침이 없다. 90분 내내 테크니컬에이리어에서 서서 선수들을 진두 지휘한다. 골이 들어가면 선수보다 더 기뻐하며 필적필적

뽀뽀 찬스를 놓칠 때면 땅을 치고 아쉬워한다. 이제 그런 모습이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서울을 상대하는 팀들은 “선수 12명과 싸우는 것 같다”고 말할 정도. 장대비가 오는 날 최 감독은 고급양복이 흠뻑 젖는 것도 아랑곳 않는다. 수중전이 벌어지면 최 감독 때문에 다른 감독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비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최 감독은 그라운드 안에서는 치열하게 싸우되 밖에서는 선후배의 정을 돈독히 유지하는 그런 관계를 꿈꾼다. 최 감독은 “킵오프 휘슬과 함께 벤치의 기 싸움도 시작 된다”고 말한다. 상대 감독이 학교 선배이든 과거 은사이든 경기 중에는 양보가 없다. 최 감독이 아쉬워하는 경기가 하나 있다. 2012년 11월4일 수원 삼성과 홈경기. 서울은 그 경기 전까지 수원을 상대로 7연패, 6경기 연속 무득점이었다. K리그 최고 라이벌전이라는 평이 무색할 정도로 열세였다. 그날도 서울은 0-1로 끌려가고 있었다. 패색이 짙었다. 그러나 후반 중반 교체 투입된 정조국이 종료 5분 전 동점골을 터뜨렸다. 분위기가 완전히 서울로 기울었다. 남은 시간 충분히 역전도 가능했다. 그러나 수원 윤성호(현 부산) 감독은 노련했다. 윤 감독은 정조국의 골이 오프사이드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FC서울 최우수 감독은 AFC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하는 등 요즈음 K리그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도자다. 사진은 2012년 K리그 올스타전에서 화제를 모았던 최 감독의 발로렐리 세리머니. 스포츠동아DB

느린 장면을 아무리 돌려봐도 오프사이드는 아니었다. 서울의 흐름을 끊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를 보는 최 감독은 애가 났다. 단순히 역전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 아니었다. 남은 시간 4만 명이 넘게 모인 관중에게 더 멋진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 초조했다. 윤 감독 항의로 경기는 3분 이상 지체됐고, 다시 재개됐다가 허무하게 끝나 버렸다.

최 감독은 당시 윤 감독에게 다가가 “선배님 이 제 그만하시고 경기에 집중 하시죠. 4만 명이 넘

는 관중이 슈퍼매치를 보러 왔습니다”고 따끔하게 말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윤 감독은 최 감독의 동래고-연세대 선배다. 둘은 평소 친한 사이다. 하지만 경기장 안에서는 똑같은 감독이다. 지도자는 팬들에게 좋은 축구를 보여줄 의무가 있다는 게 최 감독 생각이다.

최 감독은 경기 후에는 다시 서글서글하고 예의 바른 후배로 돌아온다. 축구인끼리 화합해 서로 밀어주고 도와주는 문화를 만들고 싶어 한다. 최 감독은 올 6월 K리그 감독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골프를 쳤다. 그가 일일이 연락을 돌렸고, 라운딩 비용도 지불했다. 일종의 작년 우승 덕이었다. 그는 이런 모임을 통해 서로 가깝게 의견을 나누고 한국축구 발전을 논의하고 싶어 한다.

●업그레이드된 서울을 꿈꾸다

최 감독은 지난 3년 동안 설 틈 없이 달려왔다. 한 눈 팔지 않고 서울을 좋은 팀으로 만드는 데 신경 썼고, 승승장구했다. 그런 그도 요즘 조금씩 무기력함을 많이 느꼈다. 감독대행을 맡은 직후 끓어올랐던 열정이 조금씩 식는 것도 느꼈다.

올해 받은 AFC 감독상이 터닝 포인트가 됐다. 최 감독은 “상을 받은 것 자체도 기분 좋지만 이렇게 큰 상을 통해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게 됐다. 더 잘해야겠다는 새로운 기운이 생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감독은 내년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서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순히 좋은 성적, 관중 흥행 뿐 아니라 재미있는 축구로 한국축구의 패러다임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겨울 선수 스쿼드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줄 계획이다. 그는 “지금까지 해온 것을 지키려 하면 안 된다. 서울 같은 팀에 정체는 퇴보나 마찬가지다. 발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donga.com 트위터@Bergkamp08